학술원 회원 吳鳳國 박사

△ 오봉국박사 근영

사람마다 제각기 희망과 목표가 다르겠지만 법과대학을 나온사람이면 훌륭한 법관이, 가능하다면 대법원 판사가 되는것이 일반적인 소망하라 하겠다.

의대를 나온사람이면 편작이나 화타 같은 명의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농대 졸업생은 과학적으로 운영되는농장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면 학자들의 최고의 명예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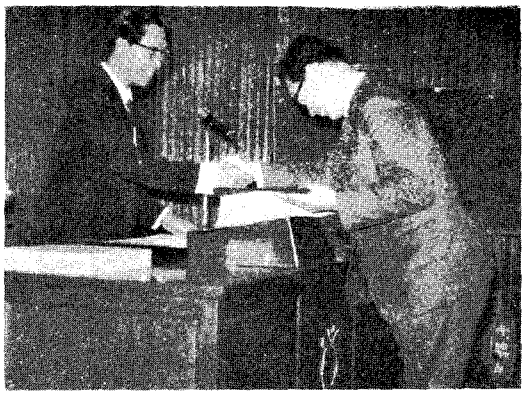
물론 많은 연구업적으로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에 정부는 문예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업적이 뚜렸하고 덕망이 있는 저명학자들로 학술원 회원을 다시 임명하였는데 우리 **축산업계에서 많은 학자들의 선망의 대상인 학술원** 회원에 본회 3대 회장을 역임한 오봉국 박사가 학술원 회원에 추대 되었음을 이미 일간지상을 통하여 보도 된 바이며 이는 오봉국박사 개인의 명예뿐이 아니고 우리 양계업계의 경사라고 하겠다

오봉국 박사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유치한 농촌 부업의 주먹구구식 양계를 현대과학적인 양계로 발전시키는 산파 역활을 하였고, 사단법인 대한 양계협회의 전신인 한국가금협회를 창설한 창설자의 한분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초창기의 협회가 오봉국박사가 이끄는 양계강습회로 출발 하였으며, 협회의 경비는 오박사가 저작한 육추일지의 판매 대금에 의존하였던 것을 당시 협회에 관여한 분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리라 생각한다.

당시 휘경동 동신종축장의 추운 사무실에서 방한모를 쓰고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육추일지 원고를 집필하고 판권을 협회에 기증하여 협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하였다. 3대 회장 재직시는 현재의 월간 양계를 창간하여 초대 발행인으로써 여러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반석위에 기초를 잡음으로써 다음 달이면 **12년** 창간을 맞게 되는데 그간 한번도 결본 없이 발



△ 가금협회회장 재직시 초대 월간양계 편집위원장 한인규박사에게 감사패를 드리고 있다.

△ 양계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로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김영진 식산차관보대리수여)

행한 것도 이때 기틀을 확립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년 양계산업이 장기간 불황에 접하자 양계 안정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여름 지방강습회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학술원 회원은 정부의 학술문화 정책에 대할 모든 자문및 국내 발표논문의 심사 등을 하게 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학회의 추천에 의해 학술원 회원의 비밀 투표에 의해 추대된다.

오봉국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며 「육용종계의 주요경제형질에 대한 결합능력 추정에 관한연구(1979년 학술원논문집)」외 50편 정도의 주요논문과 「최신양계요론(1963, 文運堂刊 국판481면)」등 14편의 주요 저작물을 발간 하시고 세계가금학회 본부 평위원및 한국지부 회장, 미국 가금학회와 축산학회 회원 한국축산학회장, 양계협회 전신인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농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축산업 협동조합 자문위원, 본회 고문으로 있다.

한편 오박사는 폭넓은 학문교류를 위해 콜롬보계획에 의한 호주의 국제가금산업세미나(72.1~72.3), 미국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가금학회(74.8), FAO주최 개축개량회의(스리랑카, 77.2), 제16차 세계가금학회 (브라질, 78.9), 금년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축개량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해외 학술모임에 한국 대표로 참석 한 바 있다.

박사는 현재 부인 李 春子 여사와의 슬하에 1남3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외아들 星哲군도 축산학을 전공, 사료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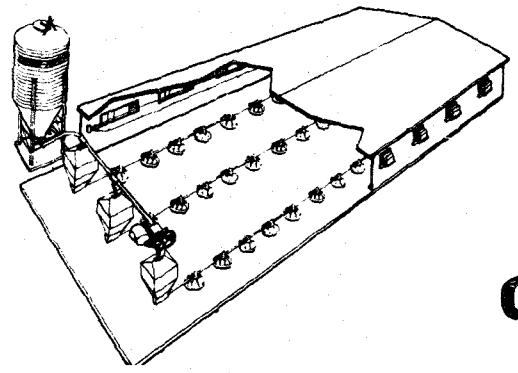
앞으로도 오봉국박사의 앞날에 더욱 행운이 있기를 빌며 박사의 간단한 경력을 소개한다.

△ 양계업계 수준이 높아지자 업계지도층 인사들은 대학 강의실을 개방해 직접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한 강의를 진행.

52. 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52. 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교
54. 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강사
56. 3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가축육종학)
57. 12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가금육종학)
58.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임강사
59. 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조교수
62. 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교수
68. 9 호주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가축육종학)
69. 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68. 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장
69.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무과장
69. 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인사위원(현재)
70. 1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운영위원
74. 1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동물사육장장
75. 2 서울대학교 학과통합조정위원회 위원
75. 9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위원회 위원(현재)
77. 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장
78. 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부설 농업개발연구소 소장(현재)
68. 4 FAO한국협회 축산분과 전문위원(현재)
69. 1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 회장
69. 4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연구지도위원
70. 4 경기도 지역개발 평가교수단 위원
70. 10 세계가금학회 본부 평의원(현재)
72. 2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72. 9 한국육종학회 이사, 부회장(현재)
72. 10 한국축산학회 회장
73. 4 과학기술처 조사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자문위원
76. 4 농어촌개발공사 개발자문위원
78. 2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겸임연구관(현재)
78. 8 축산진흥회 자문위원
80. 11 대한양계협회 고문 닭 경제능력 검정위원장(현재)
81. 2 농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재)
81. 8 학술원 회원(현재)
81. 9 축산업 협동조합 자문위원(현재)
81. 9 대한양계협회 양계안정기금 추진 자문위원장(현재)

초어 타임의 어거방식에 의한

자동급이의 도입은 축산의 혁명입니다.



사료의 오염에서,
사료의 훼손에서 보호되고
일손을 덜어드리며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하여

CHORE TIME

농장의 자동화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라도 상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생산성과 경제성은 가지신 분만이 아십니다.

悟鎭洋行 723-4125
OHJIN CORPORATION 723-4128